



1 수경 스님이 기도문을 낭독한 후 소전식을 하고 있다. 2 4대강 사업저지운동을 위한 기도도량 여강선원은 3월 13일 개원식을 진행했다. 3 레계그룹 '월드 씨티'는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음악 공연과 함께 장난감 포크레인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기도가 마지막 눈물이기를...

남한강 여강선원 개원

경기도 여주 신록사 앞 강변에는 굽고온 금모래가 빛나는 여강(驪江)이 있다. 김소월 시인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며 노래했던 곳이 이곳일 듯 싶다. 삶이 고된 이에게 여강은 유유히 흐르는 모습만으로도 소리 없는 위안이었다. 2010년 어느 봄날, 찾아간 여강에서는 난데없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늘 평화로웠던 여강은 기계음으로 가득차 잔잔한 불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끔찍했다. 여강 여주보는 정부의 4대강사업의 핵심지역 16곳 중 한곳이다. 여주보 건설작업은 이미 9.1%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1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3월 중순부터 공사가 본격화 되면 강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삽질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前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음 스님,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재일 사찰행태연구소장, 신경림·박남준 시인, 최병성 목사, 홍태원 교무, 이종걸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당당 의원 등 수경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개원식 사회를 본 현각 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성찰로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동일한 방식의 대응 대신, 개인 및 사회가 함께 지구와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임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4대강 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박남준 시인은 '다시 또 여강에 몸을 던져'라는 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시는 개탄에 가까웠다. "하루아침이면 말이 바뀌는 경박하다 못해 야비하고 쥐새끼처럼 사투하고 탐욕스러운 이명박 정권만을 닮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태, 설마, 외면, 나 하나쯤이야 만행이 살점의 만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긴 시가 낭독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의가 숙연해졌다. 수경 스님은 '생명의 강을 위한' 기도문을 낭독했다. "강가에서, 이 땅의 생명줄인 강가에서, 남한강에서, 한 강가에서 하늘과 땅과 물과 바람의 혼들에게 온 몸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중략) 땅과 물과 햇빛과 바람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감사의 편지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마지막 눈물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문 중반에 이르러 스님은 말을 잊지 못했다. 스님은 눈물을 흘렸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스님은 기도를 불에 태워 날려 보냈다. 슬픈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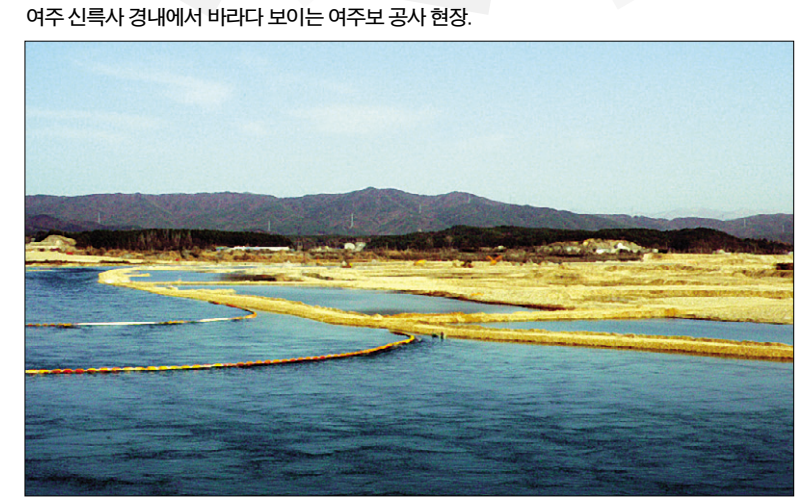


여주 신록사 경내에 자리한 여강선원 개원식에는 수경 스님의 4대강 사업저지 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강 여주보 9.1%, 전국적으로는 12% 공정

'강처럼 살겠다'는 신념으로 강 살리기 나서

고 선원 개원 취지를 밝혔다. 수경 스님의 행보를 격려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절망이 묻어났다. 신경림 시인은 "국토가 조각조각 나고 있다. 강을 네모반듯하게 잘라서 어찌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은 단순 자연 파괴, 환경오염이 아니다. 1000년, 1만년이 지나도 되돌리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욕하는데 그치지 말고 모두가 적극 나서야한다. 시대의 죄인이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는 "여강선원 개원은 타성, 무심의 생활을 죽이려 때려 깨우는 행위"라며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 신록사 경내에서 바라다 보이는 여주보 공사 현장.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가천도장량장자용의식식사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비녀 / 흑단목비녀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목비녀천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원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덕과 복판을 마음대로 이루어 주며 일에서 형이 행하여져야 애벌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열암,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구토,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가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들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들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들(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